

미래엔과 동아일보 교육법인이 함께하는

중학교 자유학기제

www.m-teacher.co.kr
edu.donga.com

미래엔의 교수 활동 지원 플랫폼

Mirae N 센터

www.m-teacher.co.kr

vol.23 | 2018년 9월호

함께 성장하는 스승 & 제자

함께 성장하는 스승&제자'는 제자들의 마음을 여는데 성공한 교사들의 상담 사례를 소개하고 지도 노하우를 알려주는 코너입니다.

게임하고, 소풍가고... 신나는 Wee클래스도 있다!

※ 이 사례는 김영옥 경기 봉일천중 상담교사의 사례를 기자가 정리했습니다.

경기 파주시에 위치한 봉일천중은 상담교실인 'Wee클래스'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봉일천중 Wee클래스(이하 위클래스)는 학생들이 상담에 대해 갖고 있는 인식을 긍정적으로 변화시키기 위해 노력했습니다. 전교생에게 상담의 중요성을 알리는 '상담체험주간'을 운영하기도 하고, 상담교사가 학생들과 함께 소풍을 가는 '사제동행 프로젝트'도 추진했지요.



그림 그리고 게임하며 신나게! 자연스럽게!

많은 학생들은 위클래스를 '찾아가기 어려운 곳'으로 여깁니다. 누구나 편하게 놀러와 고민을 털어놓을 수 있다고 말해줘도 막상 고민이 생겼을 때 위클래스를 찾는 학생은 드물지요. 아마 상담을 받는 것에 대해서 많은 학생들이 편견을 갖고 있기 때문일 겁니다.

그래서 학생들과의 거리부터 좁히려고 노력했습니다. 신나고 재밌는 활동 위주의 프로그램을 통해 위클래스 방문을 유도하는 상담체험주간 운영이 대표적입니다. 상담체험주간에 운영된 프로그램 중 특히 인기 있었던 프로그램은 동그라미 모양의 종이에 다양한 표정을 그려보는 '내 마음을 다다다'입니다. 슬픔·짜증 등 부정적인 표정을 그린 경우에는 힘들었던 이유도 함께 써서 친구들과 공유했지요.

게임은 우리 학생들이 아주 좋아하는 활동입니다. 교사에게는 학생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유도할 수 있는 유용한 도구이지요. 그래서 교사가 감정을 나타내는 단어를 초성으로 보여주고 그 감정에 대해 설명하면, 학생들이 어떤 감정인지 알아 맞히는 '감정단어초성게임'도 함께 했습니다. 'ㅇㅇ'을 보여주고 '이유 없이 힘든 마음'이라고 설명하면 학생들은 '우울'이라는 정답을 말하는 식이지요.

아직 어린 학생들은 어떤 감정을 느끼면서도 그 감정이 정확히 무엇인지, 왜 그런 감정을 느끼는지 깨닫지 못합니다. 하지만 감정의 실체를 정확히 알아야 그 감정을 더 즐길 수도, 또 해소할 수도 있습니다. 학생들은 그림을 그리고 게임도 하면서 미처 몰랐던 자신의 감정을 깨달았습니다.

무엇보다 깔깔 웃으며 그림을 그리고, 신나는 게임을 한 학생들은 좀 더 편안하게 위클래스를 찾기 시작했습니다. 한 번도 위클래스에 방문하지 않았던 학생이 찾아와 진솔한 고민을 털어놓기도 했지요.

교사가 준 사랑, 언젠가 더 큰 사랑으로 자라나리

사랑은 둘 이상의 사람이 나누는 감정의 교류입니다. 하지만 많은 학생들이 이런 긍정적인 감정의 교류를 경험해보지 못한 채 자랍니다. 학생들이 교사에게 사랑받고, 친구들과 우정을 나누며 따뜻한 감정의 교류를 경험해볼 수 있도록 '사제동행 프로젝트'를 추진한 이유입니다. 주말을 이용해 △남산타워 △한옥마을 △전쟁기념관 등으로 함께 소풍을 떠나는 것이지요. 학생들은 선생님·친구들과 맛있는 밥도 먹고 대화도 나누며 '사랑'을 배워갔습니다. 어떤 학생은 "나중에 상담교사가 되어 더 큰 사랑을 나눠주고 싶어요"라고 말하더군요. 저 역시 더 많은 학생들에게 사랑을 나눠주는 선생님이 되고 싶습니다.

우리학교 연구모임·동아리를 소개합니다

활발하게 활동 중인 중학교 교사의 연구모임 혹은 동아리를 소개하고, 이 활동이 학생 지도에 어떤 도움이 됐는지를 알려드립니다.

전남 목포덕인중 교사동아리 '비전드림'

교사의 사랑이 학생의 꿈 피워낸다



학생들의 진로역량을 강화하기 위한 프로그램 개발 회의 중인 '비전드림' 교사들. 목포덕인중 제공

전남 목표에 있는 목포덕인중에는 교사 동아리 '비전드림'이 있다. 비전드림은 꿈이 없는 학생들이 꿈을 찾고, 그 꿈에 대해 더욱 명확한 비전을 가질 수 있도록 다양한 활동을 펼친다. 비전드림을 이끄는 김정훈 목포덕인중 진로 교사에게 동아리 활동 내용과 그 효과에 대해 들었다.

너희들 모두가 특별하단다

비전드림의 제1목표는 성적만으로 평가받아 자신감을 잃어가는 학생들이 저마다의 강점을 발견하고, 보다 적극적으로 꿈을 찾을 수 있게 돕는 것. 이를 위해 비전드림은 교내 진로 동아리를 활성화하는 '최고의 달인에 도전하라' 프로그램을 운영했다.

이 프로그램에서는 무엇보다 교사와 학생의 협력이 빛을 발했다. 먼저 교사들은 △역사 △방송 △음악 등 스스로 관심 있는 분야의 진로 동아리를 개설하여 지도교사가 됐고, 입부한 학생들에게 자신이 갖고 있는 지식이나 재능을 아낌없이 나눠줬다. 음악 동아리를 예로 들면 악기 연주법을 가르쳐주거나, 학교폭력 예방교육 캠페인 송을 함께 만드는 식. 학생들은 교사와 함께 갈고 닦은 장기를 지역사회에서 열린 공연에 참가해 뽐냈고, 관련 대회에 참가해 상을 거머쥐기도 했다.

김 교사는 "학생들에게 진로와 관련된 구체적인 활동 경험을 제공함으로써 꿈에 대한 자신감을 심어줄 수 있었다"고 말했다.

학생들의 변화 이끌려면? 교사의 관심과 사랑이 중요

비전드림 소속교사들은 학생들의 학교 '밖' 삶에도 관심을 가졌다.

스스로가 소중한 존재임을 깨닫게 하려면 교사의 전폭적인 관심이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해서다. 비전드림이 교우관계나 학업에 어려움을 겪는 학생들을 학교 밖에서 따로 만나고, 일대일로 대화를 나누는 '소나기 멘토링' 프로그램을 병행한 것도 이 때문.

소속교사들은 학생들과 함께 문제집을 풀고, 낚시, 축구 등 학생들이 평소 원했던 활동을 하며 친밀한 사제관계를 형성했다. '소나기'처럼 내리는 교사의 관심과 사랑을 받은 학생들의 학교생활은 보다 행복해졌다. 이는 학생들의 자신감 향상으로, 그리고 꿈을 더욱 적극적으로 찾는 자세로 연결됐다고.

김 교사는 "학생이 교사를 신뢰할수록 교육적 효과도 극대화되기 때문에 함께 실시하는 진로교육의 효과 역시 더욱 커질 수밖에 없다"면서 "앞으로도 학생들의 꿈을 키워주는 동아리 활동을 이어갈 것"이라고 전했다. ▶김지연 기자 jiyeon01@donga.com

※ 중학교 교사의 연구모임 혹은 동아리를 '자유학기제'에 자랑하고, 학생 지도 노하우를 공유해주세요. 자유학기제 편집팀 이메일(edudonga@donga.com)로 연락처와 사연을 보내주시면 담당기자가 전화를 드립니다.